공공개혁·지방혁신 '투트랙 행보'…국정 뒷받침

황우여 새누리 대표 신년회견

공기업 방만 경영 메스…경제 활력의 지렛대로

지방선거, 박근혜정부 중간평가 안되게 선긋기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올 집권 여당의 방향타를 경제와 통일에 대한 '박근혜정부 국정운영 지원'과 '지방혁신'으로 정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투 트랙' 행보는 방만경영의 대명사로 전락한 공기업에 메스를 대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박근혜정부를 뒷받침하고 지방혁신을 통해 지방선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황 대표는 지방선거가 박근혜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되는 것에 대해 선긋기에 나서면서 야당의 공세에 대비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살리기와 통일 정책 지원**=이날 황 대표는 당내에 경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공기업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겠다고 밝혔다. 빚더미에 오른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당이 각종 입법활동으로 활로를 열어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의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경제혁신위는 아울러 내수 활성화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방안도 챙기게 된다. 결국, 당 경제혁신위는 박 대통령이 제창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총괄 지원하는 센터가 되는 셈이다.

또 황 대표는 '통일은 대박'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을 이어받아 "통일은 '미래성장동력'이다"고 규정한 뒤 "새누리당은 통일 대한민국을 대비해 당 체제를 새롭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당내 '통일위원회'를 강화하고, 당 부설 여의도연구원에 가칭 '통일연구센터'를 두는 등 박근혜정부의 통일 정책을 강력히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방선거는 중간평가 아니다"**=황 대표의 이날 발언 중 눈길을 끈 것 중 하나는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다. 중간평가라면 지난 4년간의 지방정부의 성적을 우선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발언이었다. 이번 지방선거 성격이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규정되는 것에 대해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야권이 그리는 '박근혜정부 중간평가'라는 선거의미를 퇴색하고자 하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지방선거 중진 차출론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회직을 가진 분은 국회에 전념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도 지방선거의 의미가 확대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황 대표는 지방혁신과 지방선거제도 정비를 제안했다.

황 대표는 "새누리당은 새해를 '지방정부 혁신 원년'으로 삼고,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과 쇄신을 이어가겠다"면서 지방파산제도 검토와 함께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교육감선거 임명제, 지방선거 소선거구제 등 당 당헌·당규개정특위가 마련한 방안을 재차 제안하는 동시에 오픈프라이머리 입법화를 야당과 함께 추진할 것을 제의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경환 원내대표, 정우택 최고위원, 김기현 정책위의장, 홍문종 사무총장이 배석한 가운데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여론조사 결과 분석 대책마련 분주

민주, "신당거품 빠졌다"…안방사수 나서

安신당, 당혹감 속 '안풍' 확산 전략 세워

지난 13일 발표된 광주일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가칭 '안철수 신당' 측이 촉각을 곤두세우며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광주·전남에서 '安 신당'의 지지도가 40%대를 유지해왔던 것과 달리 이달들어 지지도가 10%포인트 이상 빠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본보 여론조사결과 정당지지도에서 민주당은 광주에서 34%, 전남에서 43.5%의 지지를 얻었고, '安 신당'은 광주에서 30.6%, 전남에서 23.0%의 지지를 얻는데 그쳤다.

그동안 각종 언론사 여론조사결과 '安 신당'은 광주와 전남에서 40% 이상의 지지율을 얻으며 민주당의 지지율을 앞섰다.

특히 광주의 경우 신당의 지지도는 민주당의 2배에 달할 정도였다.

하지만, 이번 본보 여론조사에서 신당은 10%포인트 이상 지지도가 빠진 반면 민주당은 10%포인트 이상 상승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이며, '安 신당' 측은 당혹감 속에 본보 여론조사 결과 데이터를 확보해 분석에 들어가는 한편 향후 추이를 주시하고 있는 알려졌다.

민주당은 중앙당 정세분석팀이 직접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신당 거품'이 점차 빠지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를 계기로 호남에서 '안풍(安風)'차단에 주력하는 등 향후 '안방 사수작전'에 대대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반면, '安 신당' 측은 10여 일 사이에 광주·전남에서 지지도가 10%포인트 이상 빠진 것에 대해 의아스러워하면서 지지도 하락에 대한 배경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당 창당 준비 기구 역할을 하고 있는 '새정치추진위원회'는 광주·전남에서 신당의 지지도가 추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주중 새정치를 위한 국민추진위원회 1만명 지지선언을 이끌어내는 등 또 한번 호남에서 '안풍(安風)'을 일으키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3일 발표된 광주일보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백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11일 이틀간 광주지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 전남지역의 성인 남녀 11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이뤄졌다. 조사에는 구조화된 설문지에 기반한 ARS조사를 이용했고 표본오차는 광주가 95% 신뢰수준에 ±3.08%포인트, 전남은 ±2.96%포인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왕복, '광주교육 3·6·9비전' 제안

광주교육감 선거 출마 선언

김왕복 조선이공대학교 총장이 14일 오는 6월 광주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지낸 김 총장은 이날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교육감 3년의 광주교육은 불통·불공정·불신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이념논쟁에 빠져들면서 광주의 각종 교육지표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등 총체적 난국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인성교육만 좋고 수월성교육은 나쁘다는 외눈박이 현실인식으로 학교간 경쟁력을 상실했고 실력광주의 위상도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광주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 교육을 통한 교육혁신 ▲진로교육으로 미래행복 실현 ▲차별없는 교육 실현 등 '광주교육 3·6·9비전'을 제시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자치구별 으뜸고(가칭) 육성, 영어체험학습센터 구축, 참여·소통 위한 미니 컨퍼런스 활성화, 학교단위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 등을 내놨다.

김 총장은 자신의 이름을 따 '교육은 왕복(소통)이다'를 구호로 내걸었다. 그는 "현재의 광주교육은 대부분 소통부재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우선 학교장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예전 실력광주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역설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여야 대표 "막말 추방" 한목소리

'품격정치' 기대해도 될까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목소리로 정치권의 '막말' 추방을 다짐하면서 실현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새누리당 황 대표는 1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통합을 위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언어 순화에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면서 "남에 대한 판단과 막말과 저주는 국민통합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의 말이 달라지면 대한민국이 변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민주당 김 대표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고품격·고효율의 정치에 앞장서겠다"면서 "소모적인 비방과 막말을 마감시키겠다"고 말했다.

모처럼 여야 대표가 같은 목소리를 낸 것으로 마치 지난 2011년 연말 국회에서 '국회폭력'이 발생한 후 여야가 '국회 선진화'에 의기투합한 당시를 연상시켰다.

이 같은 움직임은 비방성 막말이 여야간 정쟁을 생산적 논의로 만들지 못하고 감정싸움으로 변질시킬 뿐 아니라 유권자에게 정치혐오증을 불러일으킨다는 자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새정치를 표방하며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행보 때문에도 이 같은 움직임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도 지난 2일 '낡은 정치'의 한 행태로 '막말'을 꼽으면서 "1월 한 달이라도 막말 없는 정치의 모습을 여야 지도부가 국민 앞에 약속하면 좋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 같은 여야간 의견 일치에 따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제제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日지도자, 무라야마·고노 담화 승계해야"

박대통령, 일제 식민지배·군 위안부 강제동원 공식 사과 선례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현재 일본 지도자들도 무라야마 또는 고노 담화를 승계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진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언행을 삼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미국 CNN방송을 통해 방영된 인터뷰에서 "그동안 한일관계가 이렇게 쭉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고노 담화라든가 무라야마 담화 등을 통해서 올바른 역사인식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무라야마 담화는 일제의 식민지배를 공식 사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고노 담화는 일제의 군 위안부 강제동원과 이를 사과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으나, 최근 아베 정권 등장 이후 이를 부정하려는 움직임이 노골화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본과는 사실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해 두 나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또 자라나는 우리 양국의 세대들에게도 뭔가 우호적으로 같이 힘을 합해 나갈 수 있는 미래를 남겨 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장성택 처형'에 대해 "숙청과 장성택 처형 등 일련의 사태가 한국 국민에게도 충격을 줬고, 또 세계인을 경악하게 했다"면서 "그리고 가뜩이나 북한은 예측 불허한 나라인데 불허성이 더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 그에 따라서 한반도나 동북아 정세도 불안정성이 더 심화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급매물" 삽니다

1. 경매 예정 / 진행중인 물건
2. 공시지가 50% 선 부동산
3. 기타 급매 부동산

경매투자

1. 특수비법 배우실 분!
배우면서 투자 가능
교육비 1,200만원
2. 경매에 투자 하실 분!
수익률 연20% 보장
투자금 3억원 이상
3.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컴퓨터등 정보 제공
연회비 1,200만원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